

인 터 서 브 프렌즈

특집, 재우야 같이 걷자

- 1) 재우들과 같이 걸었던 4달의 기록
- 2) 박찬양 후원자 인터뷰

전환의 시기,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_ 조샘 대표
우리, 모일 때 무엇을 나눌까? _ 송기태 부대표
청년들의 일상 복음화 커뮤니티, 월간홀리스틱

봄바람이 꽃가를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꽃은 피어나고 꽃 내음은 퍼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먼 곳에 있는 저희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해 주신 프렌즈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K국에서 삼채가족 드림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04 전환의 시기,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_ 조샘 대표

07 우리, 모일 때 무엇을 나눌까?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10 특집_재우야 같이 걷자

16 미션얼 패밀리 _ 신입 선교사 소개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20 월간 홀리스틱 _ 청년들의 일상 복음화 커뮤니티

24 미션얼 북 _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이플러를 제거해주세요.

전환의 시기,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조샘 대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들의 독립과 함께 타문화 선교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WCC 컨퍼런스에서 선교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는 등, 타문화 선교가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였던 1차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에서, 폴러 신학교의 랄프 윈터를 위시한 선교학자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세계 선교의 방향성은 10/40 창에 놓여있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전방 개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선교뿐 아니라, 새로운 주역인 브라질, 에티오피아, 중국, 인도의 교회들 역시 이 큰 방향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수 년 동안 세계는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IT 및 빅 데이터 등을 통한 정부의 정보 통제력이 강화되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절, 통제하고 추방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자라났습니다. 2018년 한국 선교사의 1/5이 투입되었던 중국에서 상당수의 선교사가 추방되면서, 대규모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인도와 터키, 탄자니아, 네팔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그동안의 관성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 될 것이며, 곧 선교사들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현실에 선교계와 한국 교회 전체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이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선교를 하시며 과거에 그러셨듯이 새로운 선교의 돌파를 여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며, 선교가 더는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공공의 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머물고 있던 선교가 우리나라와 동네에서도 일어나며,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되던 선교가 모든 평범한 이들의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타종교, 타민족”이라는 제한된 틀에서 하나님 통치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백성이 복음을 증거하는 “총체적 선교”로 변화되리라 전망합니다. 선교사들의 영웅적 해외 선교 시대가 이제 모든 성도가 삶으로 증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선교사들은 이 변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IT 나 한국어 교사 자격증 등등 전문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의 성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학의 고전들과 신학적 성찰들을 읽으며 그동안의 선교를 돌아보며, 동시에 미래의 변화 가운데 버려야 할 껍데기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은퇴하고 좋은 크리스천으로 선교적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공공의 역할을 갖고 타문화권으로 돌아가게 되며, 어떤 이들은 국내 다문화 사역의 장으로

“

삶의 모든

공공의 장에서

펼쳐질 선교

“

가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도, 변화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헌신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삶은 이성만으로는 기계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오히려 삶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필요한 것은 주변의 도움과 지지 그리고 시간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2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본인 스스로 납득되고 감정적으로 헌신이 될 방향이 새로워진다면 다행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 오시고 함께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도 재정적 필요는 계속되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철수되거나 후방에 나와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후원이 사라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헌신을 생각할 때 그것은 큰 손실이며 실질적인 어려움입니다. 파송 교회와 선교단체는 이들을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재정적 후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을 동행할 친구들입니다. 이 혼란과 고민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걸어주는 사람이 간절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선교 단체나 파송 교회가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바울 역시도 회심 후 십여 년 동안 고향에서의 시간이 필요했고, 선교 여행 중에도 큰 종류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성찰의 시간을 지나며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 성찰의 시간 가운데 바나바나 누가, 실라같은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어려운 시기, 주의 제자들은 성찰과 공동체의 도움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자라날 것이며, 미래의 변화된 선교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는 새롭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삶의 요소들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을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먼저는 보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인식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재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뿐 아니라 그 현장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는 말씀을 늘 새겨야 한다. 셋째는 나눔^{sharing}이다.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향한 헌신과 도전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이는 교회 공동체 모임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일 예배든, 소그룹이든 일상에서의

정체성

주재권

그리고

나눔

선교적 삶을 나누고 격려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먼저는 선교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교적 삶에 대한 이해나 열정이 없는 공동체는 그들을 품을 영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적 삶에 대한 감각이나 열정이 거의 없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선교적 삶보다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삶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나눔은 이 두 종류의 성도들 모두가 만족하며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임에서 무엇을 나눌까?

성도들의 선교적 삶은 개인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친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것이다.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나누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형성된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규모나 형태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 혹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때문에 모여야 한다. 이것이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의 핵심이다.

이런 기준이 흐려진다면 성도들의 모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모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관점만을 계속 견지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 또한,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됨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일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다. 이런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우리가 모였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중심 주제로 나누면 어떨까?

주일 예배 때에 성도들과 2-3명씩 짝을 지어서 이런 나눔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

까? 주일 예배가 축제의 예배와 감사 예배의 의미를 살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 때에는 이 요소가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다. 모임 초반에 각자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 질문은,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 말씀을 적용했을 때 경험한 일,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등으로 응용해서 질문도 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 간을 살아냈는지를 삶의 정황으로 풀어낼 수 있다. 성도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서로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된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멤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과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대신 그 짐을 덜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눌 때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혹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나눌 때 기대가 되고 소망을 품게 된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추구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고, 증거의 열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듯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실천해 보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벌써 기대가 된다. 

糖
Interserve
특집

재우야, 같이 걸자!

在友: (있을 재, 벗 우) 곁에 있는 친구

INTERSERVE KOREA

“ 선교사들의 오늘과 내일을 같이 걸어주세요 ”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의 채우심 믿으며 매일을 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갑작스러운 발병과 사고, 다가오는 은퇴 등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복지의 사각 지대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우야 같이 걷자”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는 오늘의 슬픔과
내일의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처럼 귀한 벗은 없다고 합니다. “在 있을 재, 友 벗 우” 곁에 있는
친구라는 말처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위해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위로를 선교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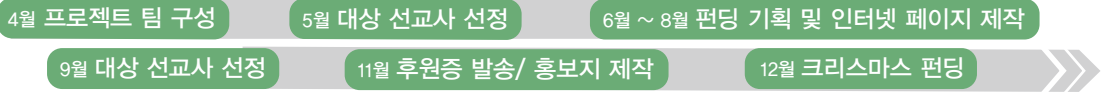
재우야 같이 걷자는 선교사 한 가정과 재우를 엮어주는 매칭 펀드입니다. 국
민연금이나 실손 보험을 위한 최소 비용의 반을 선교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
을 채워줄 수 있는 재우를 매칭해줍니다.



2020년 국민연금 최소 금액 약 10만 원이며, 실손 보험 역시 비슷한 금액이
설정됩니다. ‘재우야 같이 걷자’를 통해 5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면 선교사의 자
기부담금과 합산하여 국민연금 또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 명의 재우는 최소 1만 원부터 후원을 시작할 수 있으며, 1명~5명의 재우
는 한 명의 선교사님과 매칭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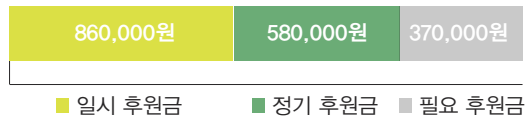
진행 로그



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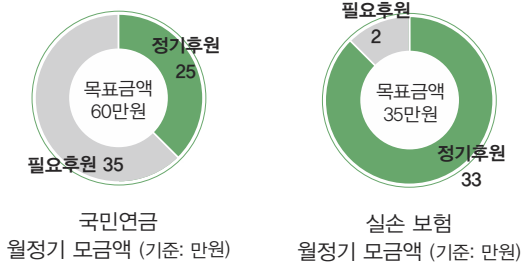
대상자 : 국민연금 12명, 실손 보험 7명

1. 모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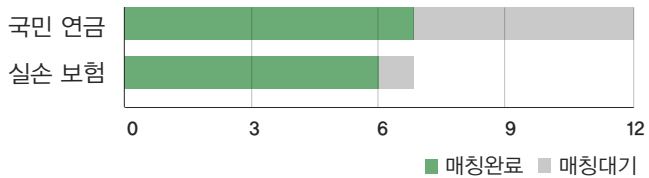


* 일시 후원금은 매칭이 중단되어 새로운 재우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시드머니로 사용됩니다.

2. 월 평균모금액 (기준 만원)



3. 매칭 현황



이후의 재우야 같이 걷자는?

재우야 같이 걷자는 2021년 3월 30일, 1기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2, 3기를 거쳐 선교사님들과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국 유목민 선교사님의 편지

“마스크 속 단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더 깊이 연합하게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표현이 생길 만큼, 의학 기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선교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먼 나라의 일이었다가도, 은퇴 후 길어질 노후의 시간을 생각하니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사들의 노후와 건강 복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후원자들에게 부담만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별처럼 빛나는 6분의 재우들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에 놀라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속 단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더 깊이 연합하게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미납금으로 해지를 해야 했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용기를 얻어 실손 보험을 갱신하게 되었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절대 작지 않은 오병이어 같은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에 지나도록 섬겨 주시는 특별한 재우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마음 모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44

인터뷰

유목민 선교사님의 재우, 박찬양 후원자님

서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과정속에서
작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32살 워킹맘 박찬양입니다.”

01. 재우야 같이 걷자(이하 재우) 캠페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조쌤의 페이스북에서 인터서브와 재우야 같이 걷자라는 캠페인 알게 되었어요. 마침 후원할 곳을 찾고 있던 터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닌, 연금과 실비보험을 돕는 캠페인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실비 보험을 후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웠고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후원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후원이었는데 생활비 및 사역비가 아닌 실비 보험

을 돕는 캠페인은 새롭고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이셨기에 사역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비보험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드는 보험이지만, 사역자들은 보험을 들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밀려나 결국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많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생활비 및 선교비 후원이 아닌 꾸준히 지속하여야 할 실비보험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03. 불특정한 선교사님의 삶의 어려움을 돕는

일이라 쉽게 후원하고자 마음먹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후원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후원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인터서브는 오랫동안 후원 사역을 지속해왔던 믿을 수 있는 단체였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나의 후원금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가 결정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4. 재우 후원을 시작하시고, 후원에 대한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마치 그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이 함께 할 때에 더욱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05. 후원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장 준비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장 젊은 오늘날의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미루다가 선교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인 한계로 땔 수 없을 때 20년 전의 내 선택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06. 후원하고 계신 유목민 선교사님께 응원 한마디를 보내신다면?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가까운 이웃조차 만나기도 어려워진 지금, 선교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상황에서 늘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07. 마지막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도가 가장 큰 힘이겠지만, 물질적인 후원 또한 선교사님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과정에서 작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직 재우를 만나지 못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031-778-7931,
finance.isk@gmail.com으로
연락해주세요.

미션얼 Family

family
01

로이 & 엘라이니
(하은, 혜은, 영은, 경은)

Missional Family



브라질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던 엘라이니는 로이와 결혼 후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신경치료 전문의로 일했다. 로이는 요리사이자, 두 딸과 두 아들의 주 양육자이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A 국에서 2년 사역하였다. 현재 선교 훈련을 받으며 선교적 마인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GMTC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 건강하고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 2) A 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로이의 사역이 잘 정해지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이 잘 열리고,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하소서.

family 02 S & H

Missional Family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해군 중위로 전역한 바다 사나이 S는 DTS 훈련을 통해 선교 여정을 시작했다. 잠시 교회사역을 했지만, 다시 중동의 C 국과 D 국에서 사역했다. H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예수 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하였다. B 국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올해로 결혼 10년을 맞이했다. 이제 정다운 집이 된 중동 D 국으로 돌아가 난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續**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다시 C 국으로 돌아가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 선교사님 가정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 2) 한국 허입, 파송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집이 있는 C 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 3)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family

03

스데반 & 뵤뵤 (생명, 샘물)

Missional Family



스데반은 국어 국문학 전공 후 학생들을 가르쳤다. 신학을 공부하고 7년 동안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였다. 성악을 전공한 뵤뵤는 울산 시립 합창단에서 일했다. 현재는 주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다. 스데반은 대학교 수련회에서, 뵤뵤는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마다 선교사가 되길 헌신했다고 한다. 선교 훈련과 영어 훈련을 마치면 B 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잦은 이사와 안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 붕 뜬 느낌이 듭니다. 영어 훈련을 위해 여수로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소서.
- 2) 영어를 배우러 여수로 가는데 영어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영어로 수용력과 이해가 더 넓어지게 하소서.
- 3)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재정 후원자들과 같은 꿈을 품고 있는 교회와 중보기도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family
04 J & Y

Missional Family



J는 무용을 전공하고 예술 강사로 일했다. 신학을 공부하며 선교사로 헌신하여 인터서브에 1년 반 먼저 허입하였다. Y는 어린이집 교사로 10년 동안 일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사역자로 섬기며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J 선교사의 파송을 지연시킨 코로나는 오히려 둘이 만나 결혼하게 되는 행복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는 부부로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부부가 하나 되고 함께 선교지로 나갈 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서로 더 잘 알아가며, 대화하고 이해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소서.
- 2) 8월 첫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적인 준비들, 특히 집을 정리하고 동역자들을 개발하는 것들 가운데 인도함이 있게 하소서.

신입 선교사님들의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http://interserve.kr/2020candy/>을 방문해주세요!

청년들의 일상 복음화 커뮤니티

월간 홀리스틱



TRENDS-MINISTRY



BOOK-TALKING



PRIVATE-NETWORKING

인터서브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한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사역(이하 다텐)이 3년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한 해 Covid-19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던 상황 가운데, 비제이 선교사와 청년들이 다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총체적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나누는 유료 멤버십 기반의 북클럽 [월간 홀리스틱]이 시작된 것이다.

월간 홀리스틱은 인터서브와 프리미엄 모임 지원 서비스 기업인 엔드스페이스를 운영하는 Thinking Lab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 선교 커뮤니티로, 청년 크리스천들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삶이 선교가 되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대가 되도록 돕는다.

다텐의 새로운 돌파를 일으킨 이 4명의 청년 스태프들은 월간 홀리스틱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

인스타그램 : @wholistic.community

홈페이지 : www.wholistic.kr



임준원 / James
(ThinkingLab, 인터서브전문위원)

코로나로 살짝 주춤해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셜 살롱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18세기 프랑스의 지성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과 문화를 나누고 토론하던 사교 집회를 뜻하는 ‘살롱salon’이 MZ세대의 취향 문화와 합쳐져서 소셜 살롱으로 재탄생하였고,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청년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했다. 취향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바로 월간 홀리스틱이다.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일상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다. 월간 홀리스틱에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해보려 한다. 첫 시작이라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월간 홀리스틱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가 기대된다. 



박진아/ 지나
(ThinkingLab, 인터서브전문위원)

20여 년을 몸담았던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멀어지게 되면서 신앙도 마음도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던 때가 있었다. ‘교회’와 ‘예배’는 계속 나가고 있었지만 늘 갈증이 있었다. 이 와중에 북클럽을 통해 만난 총체적 복음은 말 그대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였다.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순간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기쁨!

첫 번째 북클럽 8주간의 여정을 마쳤을 때부터 결심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결과든 이 ‘복음의 복음’을 결코 나만 알지는 않겠노라고. 월간 홀리스틱은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어주셨다. 모든 과정과 준비했던 손길에 감사한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걱정보다 설렘이 더 많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작은 모임이 앞으로 만날 목마른 누군가에게도 ‘냉수(잠25:25)’와 같기를! 



김민정 / 레브

(ssg.com, 월간홀리스틱 퍼실리테이터)

‘인생이란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선생님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버드 졸업 축하로 했던 말이다. 배움에 대한 태도는 곧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능력이 뛰어나고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도 서로가 배울 점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추었다면 말이다.

2017년 가을 시작된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커뮤니티는 나에게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했다. 다양한 삶의 모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었다. 치열하게 혹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싶게 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하게 했다.

앞으로 월간 홀리스틱은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을 가진 청년 크리스천들과 함께할 것이다.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갈 월간 홀리스틱 커뮤니티가 기대된다. 



이송이/ 송

(곰플레이어, 월간홀리스틱 퍼실리테이터)

회사 생활과 동시에 ‘일터 안에서는 정말 제자답게 살아낼 수는 없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회 공동체 일원의 소개로 다텐 모임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다텐 모임이 ‘월간 홀리스틱’으로 또 한 번 시작하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뻐다. 코로나 속에서 세상은 빠르게 대안을 찾아 돌아가지만, 교회는 오프라인을 강조하며 많은 사역과 모임들이 중단되던 시기에 마음을 모으게 되어 더욱 반가웠던 것 같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듣게 될 것이 준비하는 내내 설렘다. ‘월간 홀리스틱’이 엄청난 규모를 갖춘 모임이 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한다. 

월간 홀리스틱

월간 홀리스틱은 복음과 총체적 선교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이를 삶에 적용해보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다.

“크리스천은 갭 투자할 수 있을까?”부터

“사회적 행동(섬김, 사회참여)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미셔널 BOOK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

문혜정 지음 / 앵커출판 & 미디어, 2021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정종현, 방문객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흔적들이 글로 표현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책 안에는 한 남편의 아내요, 두 자녀의 엄마요, 교회의 목회자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섬겼던 한 선교사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발견한다. 이 책은 주님의 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현장 리포트이며, 그 현장에서 우리는 팔을 걷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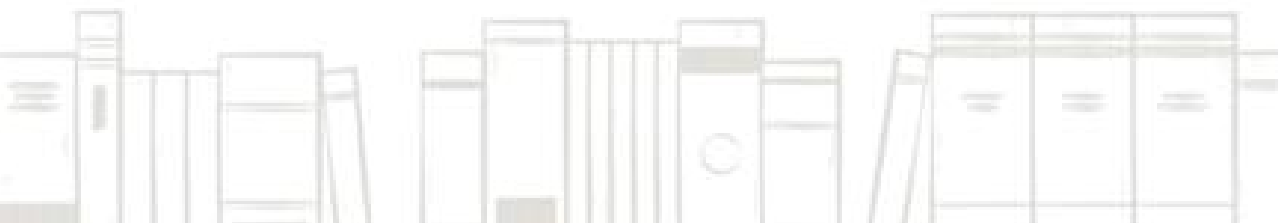
모든 생명체들에게 물과 햇빛과 공기가 일상적이지만 필수적이듯, 섬김도 사람에게 일상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태어나 부모와 가족들, 이웃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듯, 사람의 인생은 섬김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 누구도 두 가지 중의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섬김은 우리의 삶에 ‘햇빛과 공기와 물 같은 것’이다.

저자는 교회론적 디아코니아 관점에서도 섬김을 소개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개방성 속에서 타자를 위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p.67). 개신교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잃어버린 직분이 있다. 집사(執事)의 직분이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Diakonos)라고 한다. 이 말은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에서 파생됐다. 영어로 집사를 디콘(deacon)이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번역된 말이다.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 server이다. 교

회의 역사에서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운 직분이다. 순교자 스테반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 등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잃어버린 이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가 섬기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사들이 이름에 걸맞게 섬기는 사람들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

섬김의 일반화,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p.14). 저자는 키르기스스탄 지방 도시인 오쉬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사람들을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러브 나그네’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키르기스스탄 유학생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이 책은 섬김, 디아코니아의 성경적 관점으로 전반부에서 기초를 놓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일곱 여성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선교가 곧 ‘섬김’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섬김 정점이 되어 주셨다. 이 책이 우리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결국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현장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가장 중체적인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

2021 상반기 온라인 개강!



성경적관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적관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과업은 무엇인가?



문화적관점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전략적관점

미복음화 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4가지 관점을 통한
학습의 목표



하나님 영광의 확장과 [세계 복음화]

이러한 모든 것이 바탕이 될 때 자연스럽게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문화권의 선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 수강
주1회 원하는 요일에 소그룹 모임 참여

지역교회 클래스
상시 개설 가능!

온라인 월요반 03.15 ~ 06.07 / 매주 월 7:30pm /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화요반 03.16 ~ 06.08 / 매주 화 7:30pm /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수요일반 03.17 ~ 06.09 / 매주 수 7:30pm /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목요일반 03.18 ~ 06.10 / 매주 목 7:30pm /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토요일반 03.20 ~ 06.12 / 매주 토 7:30pm /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일요일반 03.21 ~ 06.13 / 매주 일 7:30pm / 온라인 소그룹

개강정보 및 온라인 신청 www.psp.or.kr

미션파트너스 www.missionpartners.kr / 02-889-6400 /  미션파트너스 퍼스펙티브스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39호
2021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1년 봄호 통권 139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1. 3. 8.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